

11. 2. TUE - 11. 7. SUN

10
Gwangju Cultural Foundation
광주문화재단 10주년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

자료집

2021. 11. 02. (화) 14:30 ~ 18:20 |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14:00 ~ 14:30	참여자 등록	
14:30 ~ 15:00	개막식 (사회자 김산옥)	문화예술교육종합축제주간 선포식 축하공연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강상수&김산옥&루트머지) 광주문화예술교육포럼 개회사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5:00 ~ 15:30	기조발제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황순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세션 1] 좌장 : 황병하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15:40 ~ 16:05	발제1	“문화예술교육 - 품격있는 문화주체자 만들기” (최영화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장)
16:05 ~ 16:30	발제2	“일본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정책” (호사카유지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16:30 ~ 16:50	지정토론	황치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연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세션 2] 좌장 : 김혜일 (문화공동체 아우름 대표)		
17:00 ~ 17:25	발제1	“문화예술교육의 경향과 전망 _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17:25 ~ 17:50	발제2	“그 판에 다시 돌아갈 용기를 내기 위해” (김옥진 마음놀이터 대표)
17:50 ~ 18:10	지정토론	박진영 (광주대학교 교육혁신연구원장) 이영신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사) 이보미 (놀이요점빵 대표)
18:10 ~ 18:20	전체토론	질의응답, 종합토론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Modern times



기계같은 인간, 인간같은 기계

»미래세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인간의 능력 중 최고, 직관

인간혁명

'Art 예술'은 그리스어 'Technē 테크네'를 어원으로 테크네는 인간이 규칙에 따라 무엇을 만드는 활동 일체를 말하는 뜻으로 우리가 예술이라 분류하는 활동 외에도 기술, 과학 혹은 학문이라 번역되는 '사이언스science'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예술과 기술은 개념적으로 서로 분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ars.아르스' 즉 'art ' 가 됨



[Leonardo da Vin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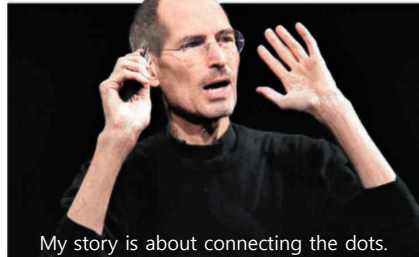
AI와 공존하는 시대, 미래의 중점은 과학과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다. 미래를 '산업혁명'에 가둘것이 아니라 '인간혁명'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창의성의 핵심, 연결지능

지식혁명

바우하우스 : 예술과 기술의 새로운 통합을 통한 '지식혁명'

<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계승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



My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창의성은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다.

- 연결꺼리 things 와 연결지능 connecting
-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며,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도전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이 함께 책임진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간조직으로서 철학, 방향성

- 지역의 문제점과 비전, 종합계획-4차산업혁명과 인간혁명
- 지역분권과 리더쉽-지방자치법 2.0

▶인적자원

- 예술인 : 예술활동과 예술교육-지역작가
-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문화예술기획자와 다른 역할)

▶예술교육 전용공간

- 꿈꾸는 예술터
- 실험공간/ 문화공간과 대별되는 공간

단단한 껍질

어린시절부터 경쟁과 주입, 결과와 성과(성적), 평가중심의 평가교육

- 무표정한 얼굴
- 형식적인 태도
- 자신에게 즉각적인 이익에만 몰두
- 세상을 적대적 대상으로 보고 자신을 보호

»나를 꼭꼭 둘러싸고 있는 자아(Ego)라는 껍데기를 뚫고 나와 세계와 나를 연결

- 내가 세상을 향해 열린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데미안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자아에 대한 성찰이다

왜 예술인가?

상상 >> 표현 >> 공감

▶ 예술은 철학처럼 언어가 아닌 다른 상징체계를 매개로 소통

- 나 자신의 경험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표현방식을 추구
- 새로운 표현방식은 세상을 바라보는 지각방식, 반응방식과 밀접

ART THINKING

평소 느끼지 못했던 것을 지각하고 질문을 던지며, 공감하여 행동하는 사고

-문맥적 사고(contextual thinking)-맥신 그린(Maxine Green)교수

▶ 왜 새로운 지각, 표현방식을 추구해야 할까?

- 새로운 것은 우리를 열어 준다.
우리의 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존재를 열어 준다.
-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현재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 즉 가능성을 꿈꾸는 것이다.

상상력

'상상력은 지식보다 유용하다'
상상력에서 출발하지 않은 지식으
로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
-아인슈타인



지금 없는 것을 가능성으로 꿈꾸는 것이 상상이다.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수 있다. 새로운 것이 나를 열리게 하고 타인을 열리게 한다.

창의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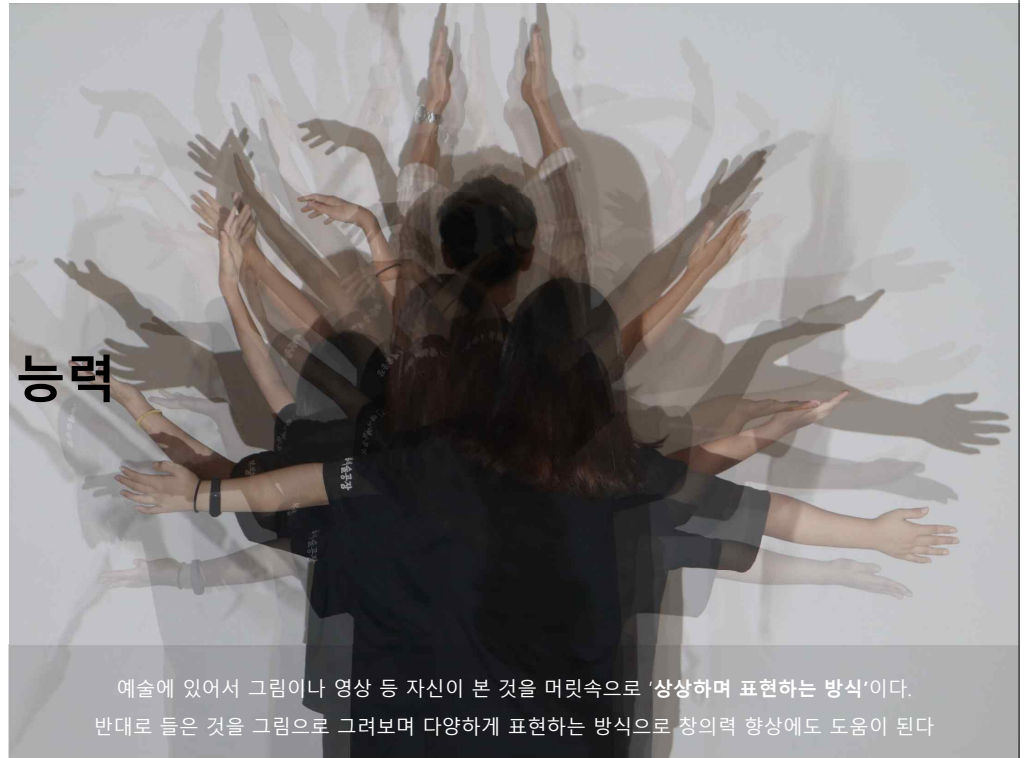
창의적인 생각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는 것들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창의성은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



아이들은 창의적인 학습자다.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많이한다. 불행하게도 질문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점차 줄어든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학습의 즐거움과 호기심이 아닌 어른들의 목표를 위해 공부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커뮤니케이션은 사고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도구**이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에 있어서 그림이나 영상 등 자신이 본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표현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들은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며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창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공감능력

타인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은 인간의
가장 본원적 감정이다.



그 동안 우리가 강조해왔던 인간의 역량은 지적능력, 즉 IQ였다.
하지만 미래사회에서는 공감을 바탕으로 타인과 얼마나 관계를 잘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생존예술

모든 아이들에게 예술을 체험하게 하고 싶은 이유는,
예술교육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교육이기 때문이다-아난딸로 에바 코디네이터

- '모든 아이들'에게 예술을 체험하게 하는 것-학교와 연계
-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예술가**를 교사로 모시는 것
- **공간의 분리**-일상적 공간으로부터 분리
- **예술창작의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 교육적 경험



일상과 예술

모든 것이 예술일 수 있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일상과 예술의 경계는 무엇일까?



샘(Fountain), 1917년 마르셀 뒤샹

작품사진 아래쪽을 보면 좌대가 놓여 있는데 작품속 좌대가 바로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만들어 주는 시각적 틀이다

Adaptive Sculpture

‘맞추어 붙이는’, ‘적응하는 조각’

-Franz West, 2009

프란츠 웨스트는 서구에서의 전통적인 예술과 관객과의 수동적 관계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는 운동가로 1960년대와 70년대에 활동하였던 작가였다.

마르셀 뒤샹이 Ready Made를 통하여 일상의 오브제를 승화시켰다면 프란츠 웨스트는 예술작품을 일상에 스며들게 했다.





앉고, 만지거나, 들어올리고

인체에 맞춰진 예술작품을 통하여 작품과 공간 그리고 신체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느낀다.



관객과 반응하는 Interactive



일상의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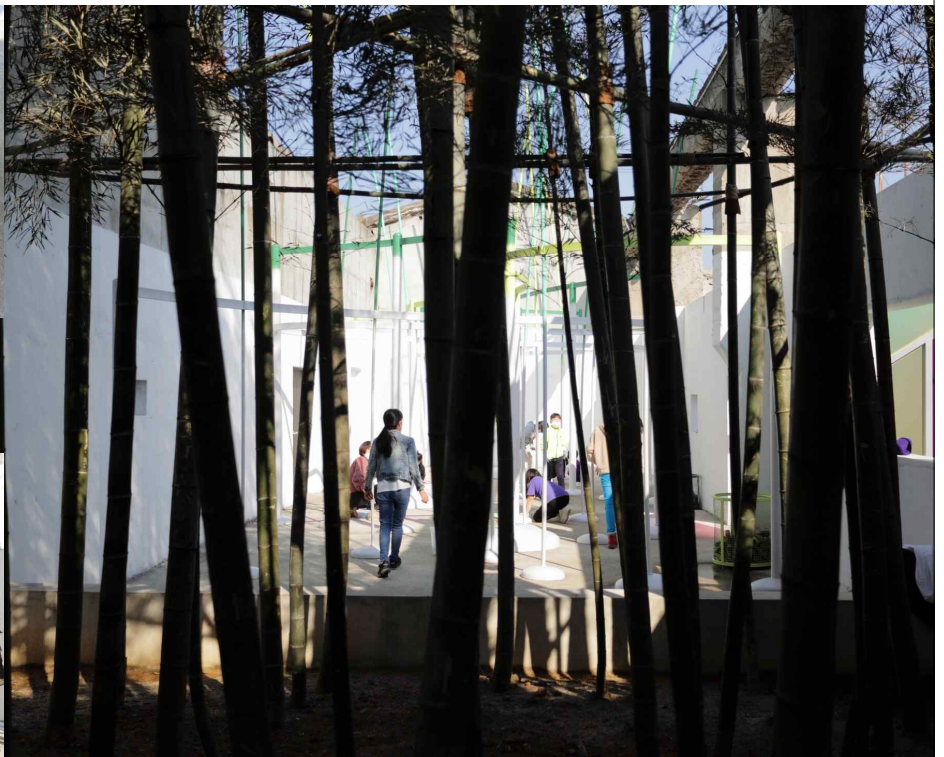
일상과 놀이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문화는 놀이에서 시작되었다" -하위징아



오늘날 예술은 철학 그리고 놀이의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대철학의 놀이 사유는 직간접적으로 현대예술의 자양분 역할을 하며, 예술은 삶에 더욱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예술에서 놀이의 정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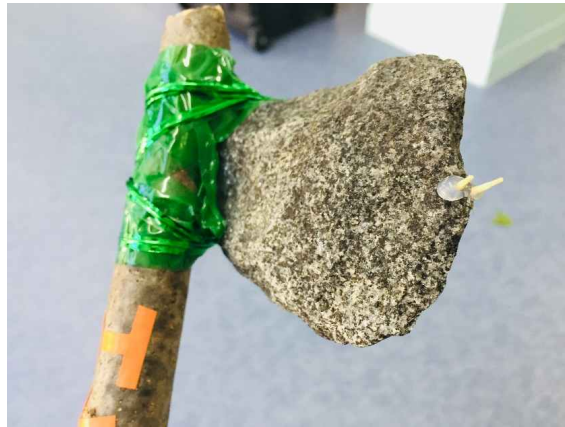
예술의 경험

어떻게 예술성을 전달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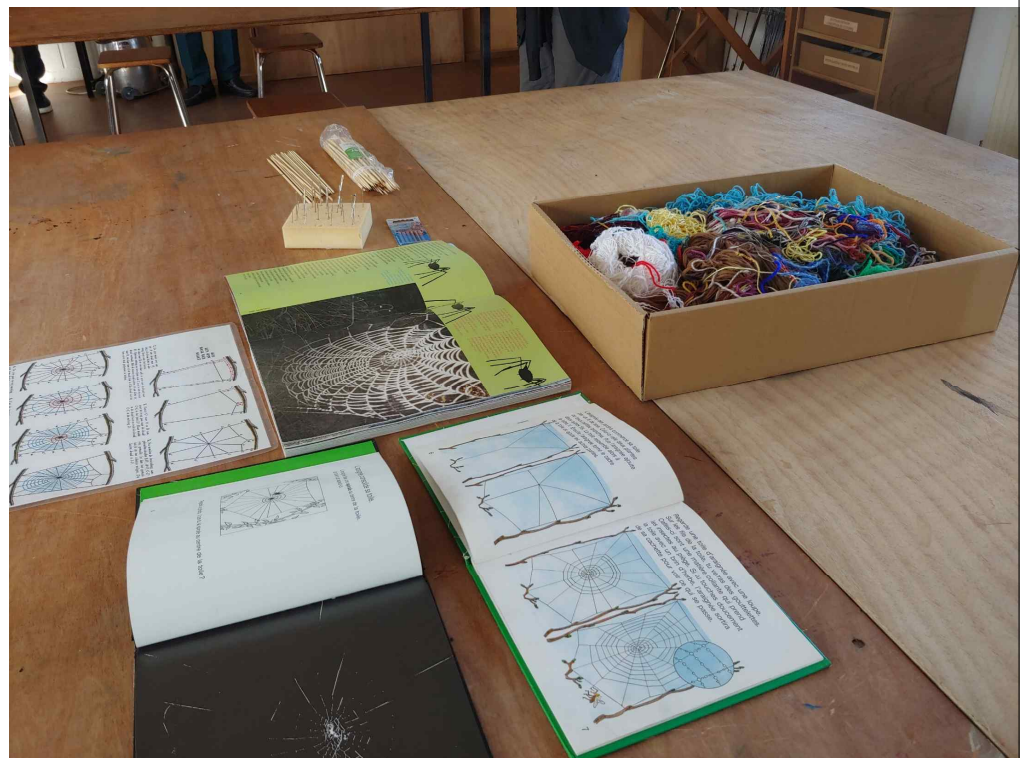
목적없는 도구

도구의 인간 Homo Faber

<Henri Bergson>



영감을 주는 책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는 공간



예술의 원시적 감각

-시각, 청각, 청각-

키스앨런 해링(Keith Allen Haring)

1958. 5. 4 ~ 1990. 2. 16(3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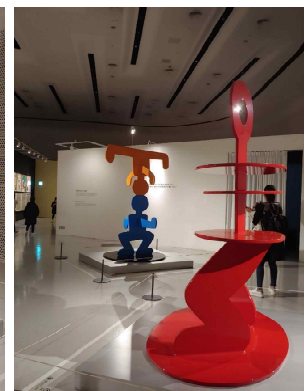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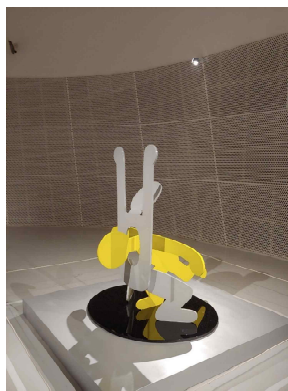
1980년대 뉴욕의 거리문화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미술가이자 사회 운동가였다. 그래피티 예술가로 잘 알려진 인물로서, 하위문화로 낙인찍힌 낙서화의 형식을 빌려 새로운 회화 양식을 창조하였다. 간결한 선과 강렬한 원색,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표현으로 그의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천진난만한 동심

나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 나는 삶을 사랑한다. 나는 아기를, 어린아이를 사랑한다.



공간이 생각을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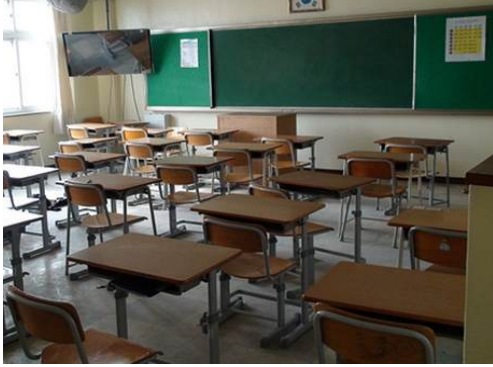
규격화 · 표준화 · 대량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종일 도시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공간에서 생활한다. 담는 그릇에 따라 물의 모양이 바뀌듯이
사람 역시 공간에 따라 **생각과 삶**의 모습이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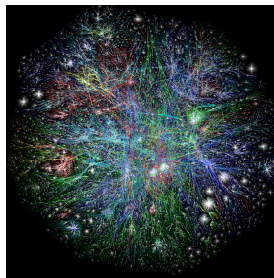
학교

Alvin Toffer는 <부의 미래> 라는 저서에서 현대의 학교체제를 산업화 시대의 노동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묘사했다. 그는 단일화, 표준화, 대량화라는 산업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적화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학교 체제라고 말하고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학교의 최대 목표였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19세기 학교모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죽은시인의 사회>에서 키팅선생님(윌튼고)이 추구했던
전인교육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

공간 여행자



The Opte Project (by Barrett Lyon)

아이들의 **상상력**은 천정의 높이만큼 자라고 공간의 넓이 만큼 확장된다.
예술은 그 이상을 가능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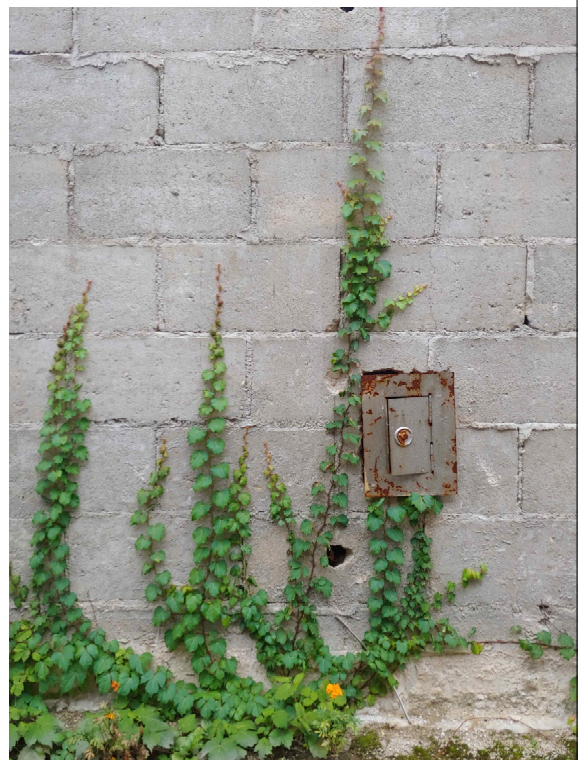


진화하는 공간

텅 빈공간은 상상력을 불러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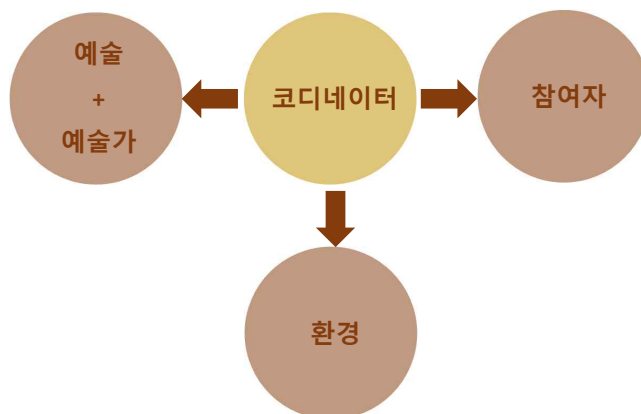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공간은 끊임없는 다양성을 제공한다.



꿈꾸는 예술터의 실험

영성한 알고리즘

AA(Art Adapter)



예술가

지금 예술가

30%

자신의 작업-예술성



코디네이터

영아+유아

감각훈련

시각
촉각
청각
+
미각

유아+초등

예술표현

이미지
소리
움직임
대화
매체
조형

청소년+성인

문화교육

예술
+
환경
역사
사회

실행원칙

예술인을 키우기 위한 예술교육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위한 예술교육

5*2

10인 이내

과정중심

학습자 중심

다양한 공간

다양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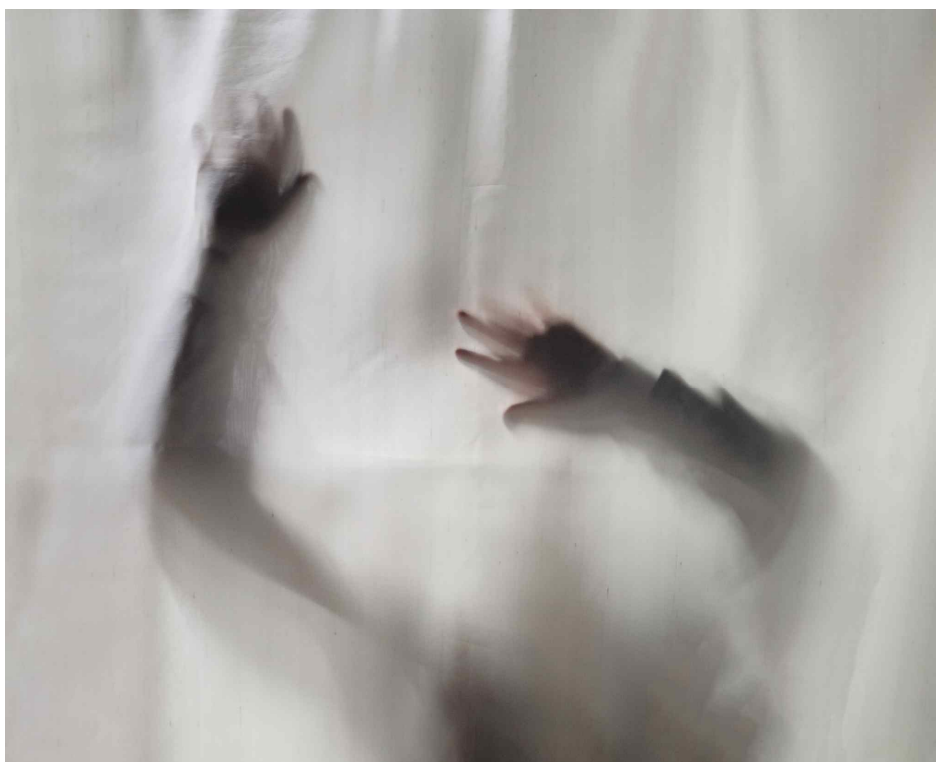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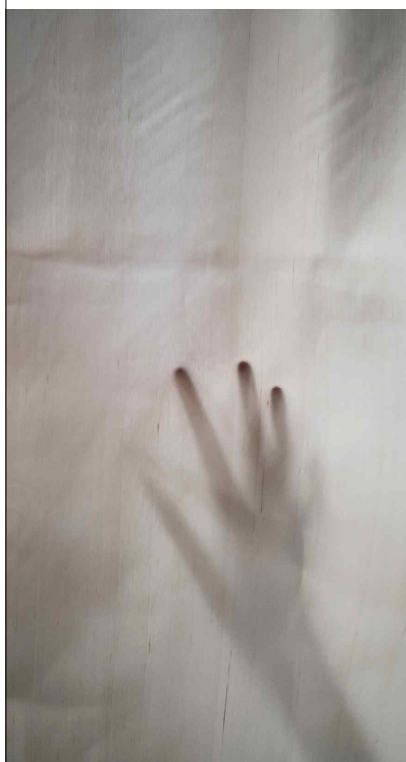
예술의 원시적 감각을 회복

HOW-6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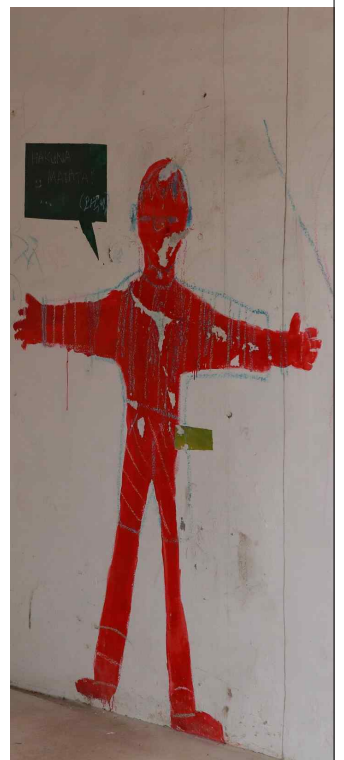
이미지, 움직임, 소리, 제스처, 조형, 매체로 구성된 융합프로그램



움직임



이미지





제스처 Gesture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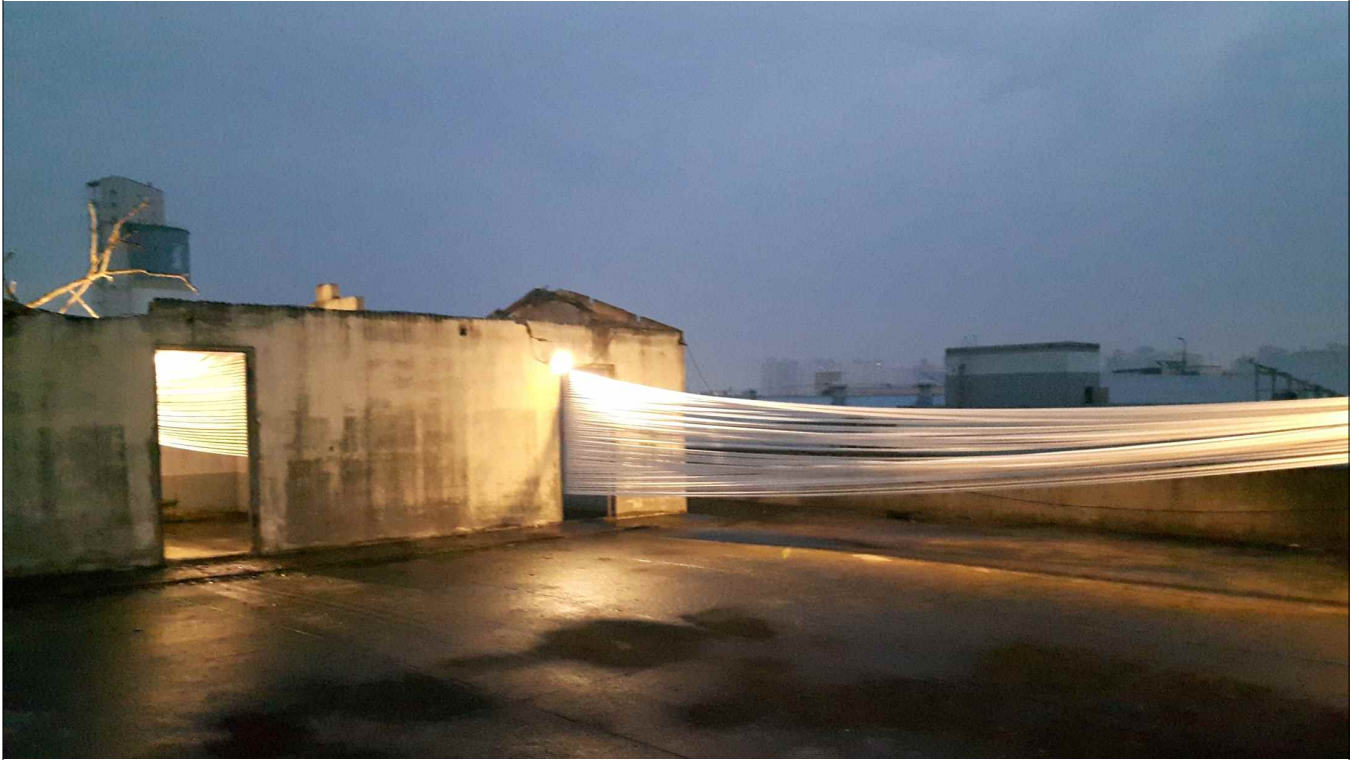






조형





AA(Art Adapter)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예술의 씨앗**’을 심는다.*

문화예술교육 = 품격 있는 문화 주체자 만들기

최영화

호남대학교 미디어영상공연학과 교수
문화예술교육원장

문화예술교육은

- 생존의 기술이 열망과 만나면서 예술이 되었다.
- 열망은 갈망이 되어 세상을 비추거나 선도한다.
- 또는 끝으로 발전한다.
- 그래서 예술은 풍요롭다.
- 문화예술교육은 ‘풍요로운 시민 만들기’ 이다.



- 하지만 풍요는 혼돈을 부르기도 한다.
- 혼돈을 다스리는 것은 질서이다.
- 행동의 혼돈은 법이 다스린다.
- 마음의 질서는 품격이 다스린다.
- 문화예술교육은 철학, 종교 등과 함께 ‘품격 있는 시민 만들기’ 이다.



-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 4차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섰지만,
지구촌 문제로 역시 결코 간단하지 않은 4차원의 세계에 있다.
-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주목하고,
대안을 탐구-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를 요구한다.
- 본디의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대이다.

- **문화예술교육은 동시대에
‘스스로 삶을 기획하는 역량 있는 시민 만들기’ 이다.**

- 시민들의 주체적인 문화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눈앞에 유행처럼 등장하게 된 문화적 활동이 아니다.
-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술’은 언제나 삶의 중심에 있었던 일상적 활동임
- ‘문화민주주의’ 등장, ‘행복 중심의 가치 지향’과 같은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비로소 문화 담론의 수면 위로 부상함
- 시민 문화는 직면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함



- 문화적 주체로서의 시민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 주체 역시 시민이어야 함
- 예술 기관과 예술가들 스스로 시민들과의 열린 구조(거버넌스)로 나아가
시민들이 묻고 예술이 답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함



문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시민문화 - 문화민주주의



-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예술적 기능의 학습을 넘어서, 성숙한 시민사회를 이루기 위한 ‘문화 시민성’ 접목이 이루어져야 함
- 전문예술인들과 생활문화로 이름하여지는 동아리 활동으로 분리되는 이분적 경계는 또 다른 문화의 양극화
-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교육, 주체자로서의 시민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 문화민주주의의 기조 아래 문화주체의 문제, 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재정립됨에 따라 문화시설 역시 시민의 문화주권, 문화복지 구현에 맞춰 재편되어야 함
- 전문가 눈높이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전문적이고 규모 있는 공간 위주에서 생활 공간으로, 수용공간에서 참여공간으로 독점에서 공공과 공유의 공간으로 전환이 요구됨.

광주다움

**문화예술이 단순히 예술적 활동에 멈추지 않고 품격 있는 문화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사유가 담겨야 함**

- '광주'라고 하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예술적 영감
- 인문, 사회,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품격 있는 문화 시민의 문화도시를 목표로 함



- ✓ 광주다움의 가치
 - ✓ 민주,인권,평화
 - ✓ 정직,정의,배려,사랑,결정
 - ✓ 도전,극복의 청년 정신...
-
- ✓ 정신이 깨어있는 문화도

**초 연결, 초 지능을 이용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 - 한국고용정보원**

: 화가 및 조각가, 사진작가 및 사진사, 작가 및 관련
전문가,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자 順

- 인간의 감성에 기초한 문화예술 직업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넘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
- 인간은 감성과 소통능력을 활용한 업무에 집중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은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로 대체하여 상호 협력하는 협업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핵심 동력 ►

소프트파워(Soft Power)

소프트파워의 핵심 구성요소

- 다양한 개체를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연계하는 연결성(connectivity)
- 산업, 문화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시각인 창의성(creativity)
- 기술 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문화 부흥(Culture Renaissance)을 가져오는 촉매제가 될 것임
- 4차 혁명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변화 요인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능이자 역할인 인간 특유의 감성 자극과 사회적 소통능력 배양과 밀접한 관계임
-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비례하여 문화예술이 중요함

인간다움을 향한 창조적 문화예술교육

- 철학 : 질문, 회의, 사유할수록 더욱 더 강건해지는 철학

기술은 자체가 도덕도 비도덕도 없으며 ,자비도 관용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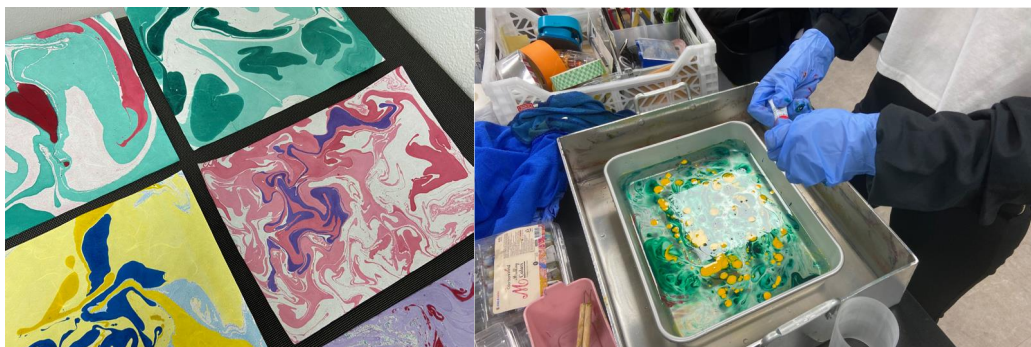
기술을 가진 인간이 비인간적으로 기술을 악용하지 않게 해 온
철학의 역할이 더 중요

- 종교 : 불안할수록 더욱 더 강건해지는 종교
- 예술 : 기술이 발전하고 보편화되면 예술이 된다.

- 브리콜라주 (Bricolage)

: 손에 닿는 어떠한 재료들이라도 가장 값지게 창조적이고 재치 있게 활용하는 기술

: 프랑스로 브리콜레르(Bricoler)에서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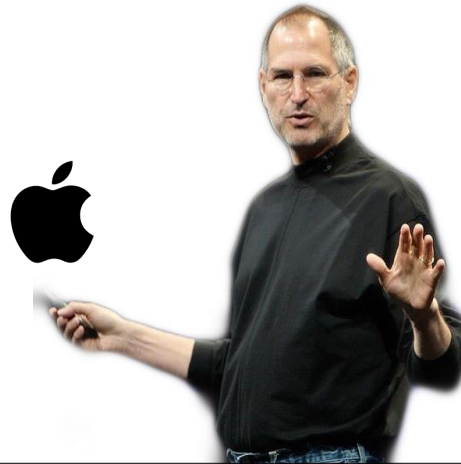


- **스티브잡스**

: 대표적인 브리콜라주의 리더

: 자신이 그 모든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술과 재능을 조합하여 최고의 가치 있는 제품 창조



우리는 창조적이다

- 단지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잊어버렸을 뿐이다.
-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상상력에 대한 어릴 적 충동을 잃어버려...
- 관습 때문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지 못할 수도...

뭘까요?



AI

- 너희 상상할 수 있니? 사유할 수 있니? 꿈꿀 수 있니?
- 무언가를 평가할 수 있니? 개관 말고 주관을 갖는 ... 비평이 되니?
그래서 선택이 되니?
- 멋대로 행동할 수 있니? 변덕, ‘똥끼’ 가 가능해?
술 마시고 시를 써봤나? 이것이 인생이고 세상이다.

‘예술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하지만 AI

- 늘 그랬듯이 혁명 이후 변화
- 비정형 예술의 확장
- ‘시민 문화주의’ 정착 -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닌 프로슈머의 시대



한 인간과 인간(사회)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지원)정책은 지금...

-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 2006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즐거워학교만들기’ 공동 TFT 발족
- 2011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TFT구성
- 2013년: 국정과제 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핵심 과제 선정,
문화 예술교육 지원법개정, 문화예술교육사 최초 배출
- 2014~2015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2014~2017년 :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진행
- 2018년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0)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흐름은...

- 2018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 5개의 주요방향성을 갖고 2030의 새예술정책 등
- 주요방향성 ①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탈중앙화, 분권화
② 중앙- 지역, 지역-지역 간 협력체계의 재구성
③ 광역센터 역할의 강화
④ 생활권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실현을 담보
⑤ 지역 자율성 확보 가능한 생태계 구축
-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지방이양 논의
①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 사업의 국비의 70%의 지방이양 예정
②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 분야는 국비 전체 지방이양 예정
③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지원
④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⑤ 기타 (꿈꾸는 예술터, 문화파출소 등)

- 지역중심문화예술교육의 핵심요소

- ① 문화예술교육 가치확장

-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장은 지역사회 및 일상 이슈와의 밀접성 높임 - 파급력을 강화

- ② 제도개선

- 제도의 개선은 지역을 중심에 둔 지원법 개정, 지역 단위 조례 제.개정

- ③ 협치, 거너번스

- 문화예술교육 협치를 위한 유사.타영역과의 연계.협력 전략
 - 중앙-광역-기초/광역-기초/지역-지역 간 협력,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 ④ 주체의 역량강화

- 예술가, 강사, 기획자, 단체 등 문화예술교육 실행.매개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 ⑤ 'R&D 강화'

- 통계.실태조사, 성과관리.분석 등의 체계적인 추진
 - 콘텐츠, 프로그램, 교육방법론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실험, 개발을 필요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심각한 인재 유출

첫째, 스스로 키워내고, 지키고, 찾아드는 요인을 제공하여 인재 유출을 막아야한다.

이에 대응전략으로,

- ① 지역내 청년전문인력의 양성
- ② 지역문화 창조인력에 대한 기술지원체계 마련
- ③ 지역유입 문화활동에 대한 merit제공과 가치 홍보
- ④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확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운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창작자 편중의 인력양성에서 탈피 창의적 생산과 문화 행정력 강화를 위해,

- ① 문화예술전문 기획·경영자의 양성
- ② 무대기술전문인력 양성아카데미 운영

셋째, 일류와 통하고, 세계와 통하는 지역문화인력 양성하기 위해,

- ① 지역예술인 재교육 프로그램
- ② 해외 선진사례 탐방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배낭족 지원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넷째, 문화복지 개념의 확산에 따라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 ① 예술교육 및 감상·체험 기회 확대
- ② 문화예술교육사, 문화복지사 등 공인자격증 소유자의 고용을 확대 해야함.

다섯째, 교육현장과 문화예술시장과의 유기적 관계형성을 위해,

- ① 산학 협력교육 및 프로젝트 지원
- ② 대학생 현장학습 및 인턴십을 지원해야 함.

여섯째, 체계적 인력관리와 문화예술산업 취·창업 지원을 위해,

- ① 문화예술 창의인재 네트워크 구축
- ② 문화예술산업 취·창업 지원센터의 운영을 제안함.

일본의 시민문화예술 교육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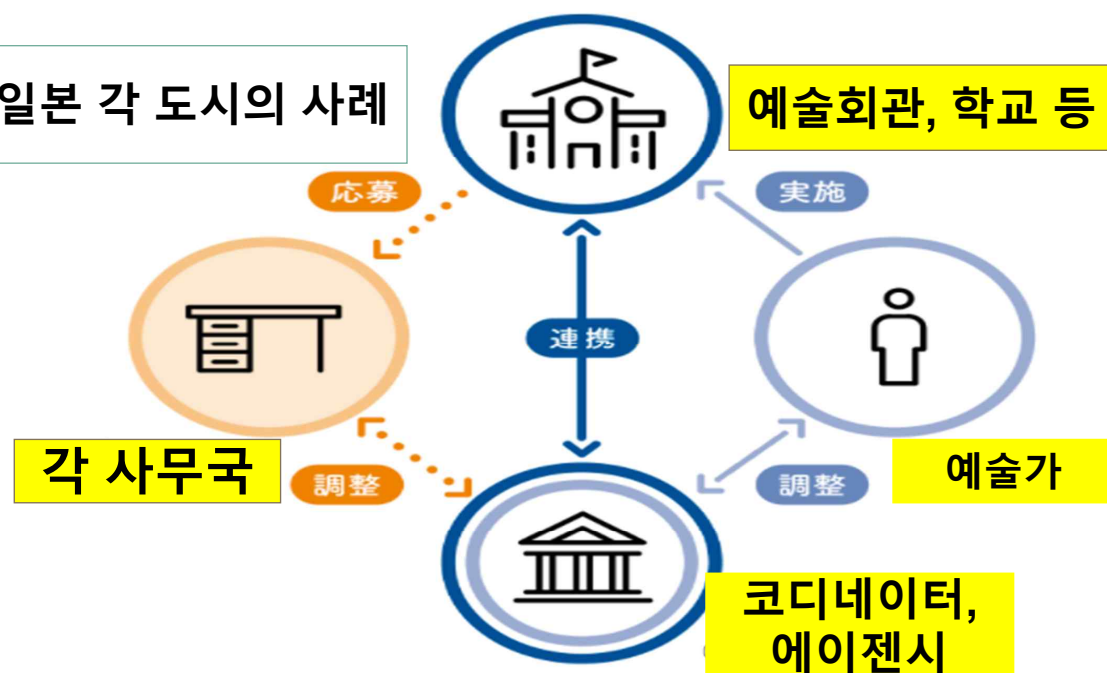
세종대학교 대우교수
호사카유지



문화청 : 도쿄소재, 일부는 교토로 이전

문화예술교육의 플랫폼 구축

일본 각 도시의 사례



(1) 체험형 프로그램

-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창조활동을 실시.
- 워크숍 형식으로 시민들의 잠재적 창조성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체험 과정을 중시함.

(2) 감상형 프로그램

- 예술가에 의한 연주나 퍼포먼스를 감상하는 것이 기본.
- 예술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게 예술 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함.
- 시민들이 음악, 전통 예능 등을 감상하므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

각 시의 시도 사례

오사카시의 시도(사례)

* 예술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힘씀

- (1)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힘쓴다.
- (2) 특색을 살린 **박물관·미술관의 활용**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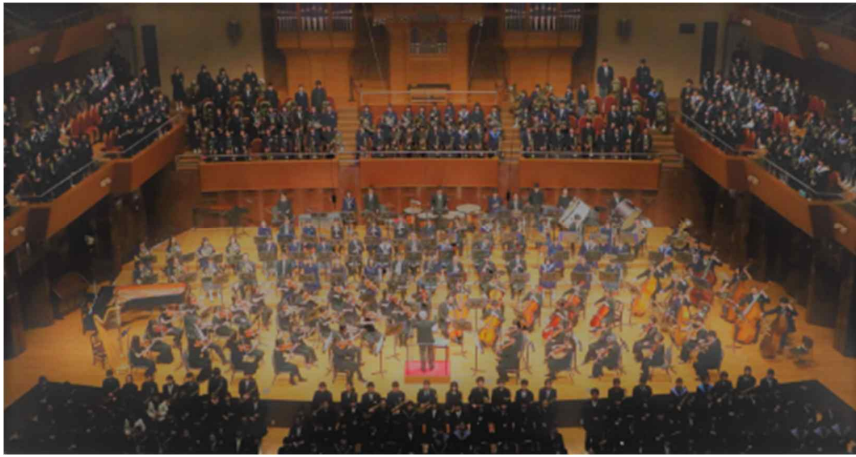


전통 예능 감상회
'아이들과 즐기는 노, 교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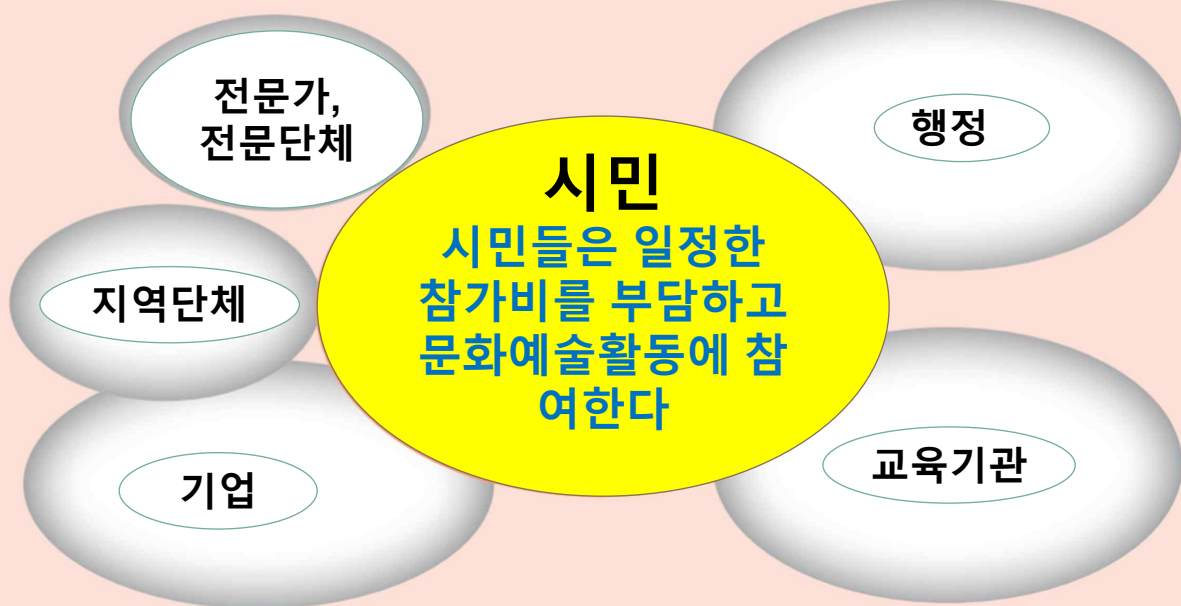


오사카시 미술관

* 예술문화를 미래로 계승 발전시킬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차세대를 짊어질 어린이나 청소년의 창조성, 감성 등을 길러, 예술 문화를 장래에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어릴 적부터 양질의 다양한 예술문화**를 직접 접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제공.



중학생을 위한 콘서트 (중학생과 프로 연주자의 합동공연)



각 지자체의 시도-음악 프로그램(사례)



연극



キラリ☆ふじみ若手芸術活動トライアル市民還元事業

原田一樹

연극세미나

퍼포먼스 체험, 커뮤니케이션 · 워크숍, 세미나 등

춤



현대무용, 힙합 등 체험, 문화축제 개최 등

미술



조형, 회화, 사진 제작 체험, 전시회 개최 등

전통예술



각종 일본 전통예술, 만담, 일본 전통 음악 체험과 감상

문제점

진영논리와 예술

2019년 8월 ‘**평화의 소녀상**’ 등이 출품되어 논쟁이 시작된 국제 예술축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문화청**이 아이치현에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변경. **감액해 지급**. 예술축제가 제기한 **표현의 자유**, **공공시설의 전시방식 등의 문제**에 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음.



平和の少女像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경향 Why Arts Education

이선철



■ 이선철

현직

- 감자꽃스튜디오 : 대표
- 연세대 / 경희사이버대 / 국민대 / 북동연방대(러시아) : 겸임교수
- 지역문화진흥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평창기념재단 : 이사

학력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런던대학교(City) 대학원 예술정책&경영

경력

- (사)사물놀이한울림(김덕수패사물놀이) : 기획실장
- (주)폴리미디어(공연/음반/극장 벤처기업) : 대표이사
-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 교수

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표창 다수
- 평창군 : 평창읍민대상(문화예술) / 평창군민대상(지역개발)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표창

위촉(2021년 현재)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컨설턴트
- 현대차정몽구재단 : 사회공헌위원
- 문화부 : 문화도시 컨설턴트 / 관광거점도시 심의위원
- 농식품부 : 농어업인 삶의 질위원
- 서울특별시 :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
- 예술경영학회 : 이사



■ 감자꽃스튜디오

공간

- 강원도 평창군 옛 노산분교(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
- 평창군, 강원도, 문화부 지원 / 건축가 이종호 설계 리모델링
- 평창군청 자산보유 / 감자꽃스튜디오 위수탁 운영

시설

- 도서관 / 박물관 / 키친 / 공방
- 극장 / 스튜디오 / 레지던스 / 게스트룸
- 마을갤러리 / 숲 / 마당

활용

- 예술가: 창작 / 연구 / 제작
- 주민: 문화예술교육 / 생활문화 / 문화복지
- 방문자: 워크숍 / 탐방 / 관광 / 교류
-

지역

- 지자체, 지역재단, 관련기관 등에 정책 및 사업 자문과 협력
- 주민업체 및 지역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기여
- 청년창업 컨설팅과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기획

- 공연 / 전시 / 교육 / 체험 / 녹음 / 출판 / 교류
- 볼소풍 / 분교캠프 / 가을운동회 / 성탄극장 / 자연영화제
- 꿈하나소리하나(예술교육) / 찹찹산중(레지던스)
- 창조원정대(마을디자인) / 로컬크리에이터(청년창업)
- 지역문화 / 축제 / 문화공간 / 관광 컨설팅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정의

-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
- Arts education? Artistic education? Culture education? Cultural education?
- 다양한 접근과 방법 및 적용 가능

→ 장르 중심의 예능교육보다는 체험과 소통, 통합을 중시하는 예술교육 지향



목적

- 예술 작품의 창작이나 감상 따위로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교육(예술교육)
-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s) + 예술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rts)
- '도구적·방법적 기능으로서의 예술'과 '목적적 기능으로서의 예술'
- 협의의 예술 교육은 예술 창작과 감상, 기예를 가르치는 행위
- 광의의 예술 교육은 예술적 정신이나 기법이 활용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포괄



효과

-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의 활용과 향유력 증진
- 창의성과 상상력 증진
- 통합적 사고와 융복합적 발상 계발
- 리더십 협동심,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타인에 대한 이해심
- 자아 표현과 소통능력 배양
-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에의 활용

→ 미래 사회의 창의적 문화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이론

- 허버트 리드(Herbert Read): education through art -> aesthetics education
- 존 듀이(John Dewey): art as experience
- 플라톤 칸트 실러 | 루소 페스탈로치 프뢰벨 몬테소리 | 리드 듀이 로스
- 심광현(창의적 문화교육) 김문환(cultural literacy) 이흥수(aesthetic experience)
- 정갑영(개인과사회의이해) 김세훈(내용적 토대) 양현미(제도와 환경)
- 임학순(파트너십) 최혜자(이론적배경) 백령(정책의변천)
- 전수환(기업의활용) 김소영(효과성분석)



환경

- 가정에서 가족단위의 문화향유 시작
- 학교에서 교과과정과 방과후교실 등을 이용하여 교사와 예술강사를 통한 교육
- 지역사회에서의 문화단체와 예술가/단체 또는 예술교육가를 통한 향유

→ 연령별 시기별 지역별 대상의 구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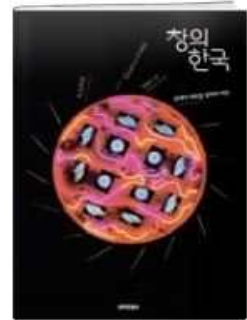
정책

- 총리실 산하 인적자원개발회의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공동사업 추진계획」 상정(2003)
- 문화부와 교육부의 MOU 체결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2004)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2004년)
- 창 의 한국: 문화비전27대 추진과제_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강화(2004)
- 문화예술교육과 신설(2005)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2005)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2006)
-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2010)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2011)

www.artE.or.kr

부처_문화체육관광부

- 기존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에 교육정책과 연계해 문화예술교육 정책 출발
- 전문예술인력보다는 예술향유인력에 중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향유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
- 문화예술교육 관련법의 제정과 산하기관의 설립을 통한 정책의 안정화
- 타 부처와 영역과의 협업 및 네트워킹으로 지역문화의 활성화 기여
-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강화



부서_문화예술교육과

-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 문화예술과 관련된 유아교육의 지원
-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교육 수요 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부처_교육부

-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움
- 사회가 원하는 인재양성
-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교육
-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 지식과 경쟁보다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 화려한 스펙보다 창의적 인재 원하는 사회



학교문화예술교육

- 전국 초·중·고 예술강사 파견
-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 공예 디자인 사진

주요사업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꽃씨앗학교 등 특화 사업
- 문화예술분야 교원전문성 강화 지원사업
- 명예교사 프로그램 운영
- 유아 문화예술교육 시범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 일반 시민/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 소외계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 지원
- 공동체 활성화

주요사업

- 생활문화동아리/동호회/공동체
- 생활문화센터/생활문화축제 설립
-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복지
- 부처 협력을 통한 대상확대
-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확산

문화예술교육의 확산과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인력양성과 국제교류 및 교육개발
-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에 대한 육성
- 다양한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교원 공무원 대학생 산업계
- 유네스코 세계예술교육대회(2010) 및 주간행사
- 다양한 초청 및 교류 워크숍 진행
- 교안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



협업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효과성 증진의 주요 방안
- 부처간 영역간 장르간 기관간 협업과 교류 강조

*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 요소 사례

- 예술가와의 다양한 작업 방식
- 예술 형식의 범위
- 시설과 공간
- 예술 활동의 질적 수준
- 예술가의 교육 활동 지원방식
- 파트너십 목적의 명료성과 인식 공유



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www.arte.or.kr)

학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청소년 및 전국민이 일상적 삶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복지에 기여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침

주요 사업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양성사업,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술 연구 및 조사, 창의교육센터 운영, 문화예술
교육 국제교류 업무 등을 수행

+ 각 광역재단과 지역별 지원센터 설립



현황

- 비대면 환경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및 협력체계 강화
- 치유와 돌봄, 공동체성 회복 등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강화



경향

- 창의성과 상상력의 강화: 창의교육 / 인성교육
- 학교 내 기존 교과와의 연계: 문예체 과목과 일반과목과의 연계
- 정책 사업과의 연계: 자유학기제
- 예술장르간 통합적 메소드의 권장: 통합수업
-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확산: 생활문화공동체
- 정부부처간 협업의 증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증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 정책과의 연계: 주5일수업 / 자유학기제 / 토요문화학교
- 기업에서의 활용: 산업단지 / 직장복지 / 사회공헌
- 지역네트워크의 구축: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
- 재능기부의 활용: 명예교사



문화예술교육의 활용영역

청소년(학교 안과 학교 밖)

- 과정을 중시하며 예술을 활용한 인성교육과 창의성, 상상력 및 리더십 증진을 위한 방편
-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닦는데 중요한 역할
- 엘시스테마 / 우드로윌슨학교 / 블라스트비트
-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교실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꽃씨앗학교



생활문화

- 도시와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 문화를 활용한 공동체 프로그램의 중요성
- 지역주민으로서의 자존감과 만족감의 고취와 공동체의 활성화 및 주민여가의 증대
- 생활문화공동체 / 생활문화동아리 / 생활문화동호회
- 생활문화센터



문화복지

- 장애인: 복지로서의 문화의 활용 증대
- 재소자: 교정시설에서의 문화프로그램의 진화
- 군장병: 동아리와 군내 향유의 기회 연속
- 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의 이해와 지역사회 동화
- 취약아동: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 아동
- 노인: 여가 및 직업훈련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기반시설

- 문화예술회관 등의 전문/복합 문화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의 강화
- 문화원, 문화의 집 등을 활용한 생활문화형 프로그램
-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공간 활용한 도슨트 프로그램
- 기타 대안적인 문화공간의 활용: 폐교, 주민센터, 학교 등



인력양성

-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복지 등에 전문성 제공의 기회 증대
-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역할에 대한 영역 확장: 교육/사업 등
- 지역 또는 신진 예술가의 고용창출과 창업지원
- 프로그램 매개자로서의 지역 문화기획 인력의 양성에 기여
- 예술강사 / 예술가교사 / 문화예술교육사



지역문화

- 지역의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계기의 마련
- 주민들의 생활 속에 계승되어 오는 동아리 활성화
- 전통문화를 교육의 소재 또는 지역 역사의 홍보에 활용
- 학교에서의 전통예술 또는 향토문화 활용 교육 증가
- 다양한 콘텐츠로의 개발에 활용



축제콘텐츠

- 지역의 정체성, 교류와 소통의 계기, 마을의 부가가치 창출
- 지역주민들의 자존감과 축제의 참여의식 고취
- 평소 문화활동의 성과물을 축제의 콘텐츠로 활용



관광콘텐츠

- 지역의 자원과 주민 중심의 프로그램은 지역관광 활성을 위한 차별화 전략
- 생태적 요소와 결합하여 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여가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시설의 활성화의 도구: 체험교실
- 공정여행 / 생태관광 / 지역관광 등에 체험과 교육의 요소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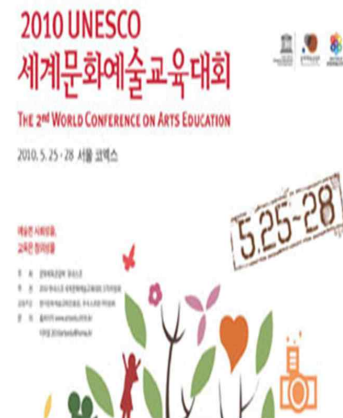
지역경제

- 지역의 다양한 사업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로서 활용
- 농촌마을 체험프로그램에의 활용
-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마케팅 지원
-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모델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으로 발전



국제교류

- 유네스코 주간행사 등 글로벌 프로젝트의 확산
- 관련 분야간 교류와 각종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 재외 동포 및 한류 팬 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각종 국제 행사에서의 체험 프로그램 증가



기업연계

- 단순 후원에서 적극적 활용으로의 전화
- 사회공헌활동(CSR)이나 가치경영의 도구(CSV)
- 임직원 복지차원에서의 활용(동아리 권장 등)
- 산업단지의 문화공간화와 근로여건개선(QWL)
- 기업의 인력양성(HRD)의 영역에서의 활용
- 한국메세나협회의 역할과 사업



활성화 유형

- 공간기반형: 생활문화센터/마을회관/커뮤니티센터/문화시설
- 교육형: 동아리/동호회/마을학교/주민교육/견학 등
- 문화복지형: 지역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 일자리창출/창업유도형: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 축제매개형: 지역축제 콘텐츠 제공과 기획 참여
- 관광촉진형: 마을관광/지역관광/관광참여
- 민속보존계승형: 각종 전통문화의 계승활동
- 지역예술가중심형: 귀촌/지역기반 예술가 중심
- 지역산업활성화형: 전통시장/영농축산/경관농업
- 사업추진형: 각종 지원사업 활용



생활문화동호회

- 무용, 음악, 미술, 사진 등 문화예술 활동을 공통의 관심사로 공유한 자발적 모임
- 생활문화 확산의 핵심이 되는 공동체 단위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일상적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축제 지원
- 참여자 스스로가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문화주체로 성장
- 생활문화동호회 형성, 발표 및 교류, 확장의 단계별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 전국적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생활문화공동체

-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매개로 한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
- 주민 스스로 문화적인 삶을 향유
-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품격과 행복온도를 높여나가는 공동체
-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사회적 격차 해소
- 공동체를 회복하여 건강한 지역문화를 만들고자 지원
- 생활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를 확대
- 지역의 갈등 스스로 해결하고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 생활권(읍·면·동) 내 주민들이 생활문화 및 생활예술의 생산자가 됨



생활문화센터

- 지역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의 문화공간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지원 사업
-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기반
-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발표 공간
-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공간, 북카페, 공연장 등
- 지역의 유휴시설 활용 사례 다수



프로그래밍 체크리스트

조사

- 환경의 파악

문화적 환경: 문화기반 / 교육적 환경 / 라이프스타일

물리적 환경 시설 / 공간 / 교구 / 기자재

사회적 환경: 인구 / 대상 / 수요

- ❖ 문화기반시설 및 기관의 적극적 활용



지역

- 지역의 이해와 활용 방안

지역환경 / 지역특성

지역주민 / 공동체 / 지자체

지역의 가용 자원

- ❖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교류 방안



기관

- 대상 기관의 특성과 조직의 이해

학교 / 사회단체 / 복지시설 / 특수기관

조직내외간 역학관계와 특성 파악

사회복지사 / 보육사 / 지도원

자원봉사자

- ❖ 관계의 관리와 상호 존중 및 협업



대상

- 수혜자의 특성 파악

구성

욕구 / 수요 / 동기 / 참여 / 만족도

- ❖ 대상 전문가와의 협의



장르

- 장르의 선택

음악 / 미술

국악 / 무용 / 만화애니메이션 / 연극 / 영화 / 문학

사진 / 공예 / 디자인

대중음악 / 게임 / 스토리텔링

- ❖ 통합교육 또는 복합장르



교안

- 수업의 준비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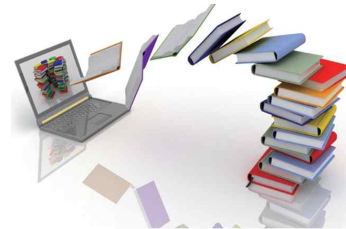
교안구성

메소드 / 통합

전문성 / 독창성 / 효율성

연구물 / 저작권

❖ **행사의 활용: 발표회 축제 등**



행정

- 사업기획과 과정 관리

기획 / 재무 / 행정 / 관리 / 보고 / 정산

교육 / 워크숍

평가와 모니터링 컨설팅

❖ **기획업무의 이해와 적정성**



평가

- 실적과 성과

효과성 / 변화

인성 / 사회성 / 가족관계

창의성 상상력 소통 표현

치유 / 치료

- ❖ 프로그램의 목적과 부합성



리스크

- 사업과정 및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협력기관: 인식 이해 협조 협력

수혜자 : 참여 몰입 돌발행동 위해

계획의 준수: 일정 재무 내용

- ❖ 효과적인 대응과 적절한 솔루션의 공유



참고자료

한국일보(20131116)

| 문 | 화 | 산 | 책 |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이선철 용인대 교수·김자꽃스튜디오 대표



지난 주 수능이 끝났다. 많은 학생들이 큰 산을 하나 넘은 듯 할 것이다. 비단 고3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대개의 청소년들이 학업과 성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네 교육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나마 한숨돌릴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기도 하다. 아무리 청소년들에게 창의성과 상상력이 중요하고 배려와 소통 등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심정으로 보면 그러한 것들이 자칫 먼 남의 일처럼 들릴 수도 있다. 어쨌든 당장은 입시와 진학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고 이를 향유하라는 것은 연감생심 한가로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는 꼭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는 필수적인 덕목이자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화예술이 가장 필요한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오히려 문화예술이 가장 멀리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미래의 인력은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며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소통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과 남을 배려하는 소양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 할수록 점차 기능적인 부분은 기계와 시스템이 해결하고 인간 본성의 요소에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

이다. 그런 맥락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을 잘 활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어릴 적부터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다양한 경로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 길러진다는 측면에서 문화예술 교육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학교의 미술, 음악시간을 늘리거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양적인 증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방식과 품질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살기 위주의 예능 교육이나 취미활동의 수준에서 탈피하여 예술 창작의 체험과 향유력의 증진을 꾀할 수 있는 방식을 전제로 한다.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이 표현력과 이해력 그리고 소통과 창의력을 기르는 방편으로 의미가 있고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소외감의 해결에도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청소년들도 이런 문화예술 교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배내수엘라의 엘 시스템이라는 정책이 폭력과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고 젊은 예술가들의 알지리가 창출되고 세계적인 음악가까지 배출한 사례는 문화계와 교육계 심지어 경제계에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의 역할을 오케스트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풍물패도, 록밴드도, 연극이나 영화도 할 수 있다.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도 문화예술을 통해 자존감을 가지고 예술가로서의 꿈도 키워 나갈 수 있게 하는 환경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고등학교 시절 문화예술 활동은 반드시 미술, 음악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교실이나 창의적 체험학습, 토요일이나 방학 프로그램, 현장탐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반 과목에서의 문화예술의 활용도 필요하다. 과거처럼 주입식 교육이나 암기식 방법, 기능의 연마나 공식을 외우는 방법이 아닌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교수방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데 이미 많은 혁신적인 학교와 교사들이 예술을 활용하여 교수법을 성공적으로 개발, 활용하고 있다.

이제 수능 끝난 학생들은 이 절호의 시간에 무엇보다도 많은 문화예술의 체험을 해 보기를 희망한다. 일시적인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일상 속에서 친구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대학에서, 사회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만족을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음악과 미술, 사진과 영화 등에서 그 길과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의 중심에 학교가 있다.

이제 방학도, 휴가시즌도 거의 다 끝나간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때만큼은 누구나 잠시 일상으로부터 탈출하여 어디론가 떠나고픈 욕구에 들쭉날쭉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을 멋지게 보낸 사람은 그 기운으로 또 남은 시간을 바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쉬움을 달래며 언제 올지 모를 다음을 기대할 것이다. 농촌에 살다 보면 마을에 방문객이 제일 북적거리는 시기다. 이때는 타는 듯한 땀병에 도로는 한없이 밀리고 마을도 농사에 한창 바쁠 때 사람들을 맞이하다 보면, 마음 같아서는 그 시기가 좀 끝고루 분산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기에 물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대부분 어릴 적 할머니 댁으로 내려가서, 또는 부모님의 휴가에 맞추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 자연을 접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특별한 계획이 없이도 그저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신나는 계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주마간산 식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보다 어디선가 진득하니 여장을 풀고 머물면서 평소 하고 싶던 일을 집중적으로 해 보는 여가의 경향이 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이제는 시설이나 풍광 못지않게 힐링이다 재충전이 다 하여 다소 교육적이고 체험적인 요소가 필요해졌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는 잠시 학교와 공부에서 해방되어 평소 해 보지 못한 것을 체



| 문 | 화 | 산 | 책 |

농촌은 또 다른 교육의 현장

이선철 용인대 교수·감자꽃스튜디오 대표

농촌은 생태 컴퓨터이자 예술교육의 장 농가소득 증대·일자리 창출에도 도움

협해보는 것이 큰 즐거움 중의 하나일 것이다. 물론 요즘은 방학도 예전 같지 않아 무척 바쁘다고는 하나 그래도 학교나 전문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마련하는 각종 캠프나 수련회는 여전히 인기가 있으며 그 내용과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행사도 전문적인 콘텐츠와 체계적인 운영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물론 일부 지나친 상업화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드러나고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애초의 목적과 취지는 바람직한 것이니 선용하면 좋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농촌 특유의 생태적 환경에 음악, 연극, 미술, 무용,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교육을 접목시키면 도시의 학교나 환경에서와는 달리 인성과 감성을 키우는 교육장으로

유통된다. 아이들은 이런 청정한 자연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심신을 기르고, 공동 작업을 통해 협동심도 키우며,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창의력도 발휘하고, 다양한 역할을 통해 책임감과 배려심도 배울 수 있다. 마을의 풍습이나 전통 또는 인정을 접하는 기회도 될 것이다. 아울러 마을이나 지역의 예술가나 청소년지도사, 체험사 또는 해설사 등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공동체 활력에도 도움이 된다.

필자가 있는 스튜디오에서도 마을의 학생들을 위해 매해 방학이면 예술캠프를 열어왔다. 국악과 밴드 놀이 문학 미술 영상 연극 아카펠라 다자안까지 장르를 달리하여 주제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체험해 보게 한다. 이런 캠프에서는 기량만 익히는 것이 아니

라 감사와의 만남으로 직업의 세계도 미리 접해 보고, 틈틈이 자연에서 놀기도 하며 마을의 음식도 맛보고, 마지막 날에는 열심히 준비한 내용으로 주민들을 초청해 공연이나 전시도 하니 모두 즐겁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 시작한 이 프로그램이 도시의 학교에도 소문이 퍼져 학생들을 보낼 테니 값은 내용으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졌다.

농촌의 장점인 생태적 환경에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육적 요소를 강화한 후 학교와 농촌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이런 캠프나 연수가 계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이어지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러면 마을이 이미 조성해 놓은 시설이나 체험 프로그램 또는 인력 활용에도 도움을 주고 농촌의 소득증대나 도농교류에 일자리 창출까지도 도움이 된다. 즉 문화와 교육 그리고 관광이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농촌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이른바 6차 산업이나 창조경제가 슬로건으로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보인다.

이제 드디어 춘삼월, 봄을 기다리는 마을에 여기저기 움트는 활기는 누구나 설레게 한다. 이제 대학교 개강을 하고 각급 학교도 개학을 하여 새로운 한 해의 교육농사를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다. 많은

학교가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 그리고 인성과 리더십을 키워주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미래의 바람직한 인재상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문화적 교양, 소통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과 남을 배려하는 소양을 필요로 한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과 미디어가 발달하고 정보와 지식의 홍수라 해도 결국 인간 본성의 요소가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유럽 문화의 중심 국가 중의 하나인 이탈리아를 비롯해 서구 사회에서는 세삼 그들의 조상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들의 위대함을 다시 조명하고 그 철학과 본질을 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한다.

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천재 예술가를 키워내는 영재교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탁월한 예술가지만 토목 공학자이며 해부학자이고 철학자이도 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능통하고 통합적인 업적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가 르네상스적 인간의 전형이었기 때문이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개발되고 예술과 과학에 대한 균형 있는 시선, 그리고 자연으로부터의 영감에 기술을

금요칼럼

이선철 감자꽃 스튜디오 대표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겸임교수

접목시키는 이른바 현재의 융복합 인재의 완결체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성취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빈치의 고향이 어딘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이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빈치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도라는 뜻이다. 그가 자란 빈치는 토스카나라는 지역에 속해 있다. 우리

자연은 교육의 보고

에게 빈치라는 동네는 생소해도 토스카나라는 지명이 비교적 익숙한 것은 그곳에서 만든 와인이나 농산물을 우리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자연 풍광이 수려하고 각종 산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우리에게 강원도와 매우 닮아 있는 지역인 것이다.

다빈치는 이곳에서 어릴 적부터 들로 산으로 마을의 자연을 접하면서 상상력과 영감을 키워나갔다 한다. 마을에 있는 농기구나 각종 사물을 보고 과학과 기술의 이치를 이해해 갔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함께 다양한 예술을 접하면서 응용과 접목을 시도하여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융복합 인재로 성장해 나간 것이다. 그는 후에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되었지만 이는 어린 시절 소박한 농촌에서의 상상이 바탕이 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강원도는

농촌과 산촌 어촌이 가지는 특유의 생태적 환경에 음악, 연극, 미술, 무용,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교육을 접목시키면 도시의 학교나 환경에서와는 달리 인성과 감성을 키우는 데 매우 훌륭한 환경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마을의 풍습이나 전통 또는 인정을 접하는 기회도 가질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예술가나 청소년지도사, 체험사 또는 해설사 등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일자리의 창출도 되고 공동체 활력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에 첨단 IT 기술 및 디자인의 결합으로 더욱 고부가가치 콘텐츠로의 개발과 활용을 꾀하면 강원도의 농산 어촌은 교육의 소외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강원도의 자연은 관광과 임업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교육 자원으로서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교육에의 활용이 촉진되면 이른바 6차 산업이나 창조경제의 구현까지 이어지니 강원도의 자연은 무한한 보고다.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빈치를 키운 농촌

지난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다. 많은 수험생들이 큰 산을 하나 넘은 듯한 것이다. 아무리 청소년들에게는 창의성과 상상력이 중요하고 배려와 소통을 중시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해도 우리네 교육 현실을 감안하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것처럼 당장은 입시와 진학이 더 시급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래의 바람직한 인재상은 필연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문화적 교양' '소통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남을 배려하는 소양'을 필요로 한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과 미디어가 발달하고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해도 결국 인간 본성의 요소를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유럽문화의 중심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는 새삼 그들의 조상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함을 다시 조명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천재 예술가를 키워내는 영재교육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가 탁월한 예술가였지만 동시에 토목공학자이자 해부학자·철학자이기도 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능통하고 통합적인 업적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가 르네상스적 인간의 전형을 엮기 때문이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개발되고 예술과 과학에 대한 균형 있는 식견, 그리고

사시사철

이 선 철

검자꽃스튜디오 대표
숙명여대 대학원 교수



자연으로부터의 영감에 기술을 접목시키는 이른바 융복합 인재의 완결체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성취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빈치의 고향이 어딘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이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빈치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도'라는 뜻이다. 그가 자란 빈치는 이탈리아 중부의 토스카나라는 지역에 속해 있다. 우리에게 빈치라는 동네는 생소해도 토스카나라는 지명이 비교적 익숙한 것은 그곳에서 만든 와인이나 농산물을 우리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자연 풍광이 수려하고 각종 농산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우리의 전형적인 농촌이다.

다빈치는 이곳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들로 산으로 마을의 자연을 접하면서 상상력과 영감을 키워나갔다 한다. 마을에 있는 농기구나 각종 사물을 보며 과학과 기

술의 이치를 이해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함께 다양한 예술을 접하면서 응용과 접목을 시도해 현대사회가 그토록 부르짖는 창의적 융복합 인재로 성장해 나간 것이다. 다빈치가 후에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된 데는 어린시절 소박한 농촌에서의 성장이 밀바탕이 됐다.

따라서 우리의 농촌도 더 이상 교육이나 문화 또는 과학과 기술의 낙후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풍부한 교육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특유의 생태적 환경에 음악·연극·미술·무용·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교육을 접목시키면 미래지향적 인재로 키우는 교육의 한창으로서 도시보다 더 훌륭한 가치가 있다.

창조경제·창조경영·창의교육 등 유달리 창조와 창의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농촌에서도 이른바 6차산업이나 스마트영농이니 하며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사회적 노력들이 꽃을 피우려면 창의적인 인력 양성이 중요한데 농촌은 이에 부응하는 훌륭한 환경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농촌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창의 인재의 산실이며 농촌의 환경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기사)

신문사	제목	링크
내일신문	토요일엔 같이 놀자!~유성구 '토요樂', 청소년 문제와 공교육 위기에 도움	http://www.naeil.com/news/Local_ViewNews_n.asp?bulgoid=1&nnum=686972
조선일보	책 읽으러 도서관 가나요? 전시, 공연 보러가요!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0/2012091001373.html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역사·사진 속 인물처럼... 렌즈 통해 '세상 보는 눈' 넓히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20/2012082001680.html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마당극 소품 만들고 동네 배경 연극 한편... "우리는 예술 하며 놀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20/2012082001620.html
한국경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전통음식 체험 인기"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_sub_view?popup=0&nid=01&c1=01&c2=01&c3=00&nkey=201208161148571
경향신문	도시를 유랑하는 배움공동체, 자유 ○○캠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301045122&code=900315
매일경제	클래식 첫경험'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꿈을 심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437681
동아일보	부모님도 깜짝 놀란 학생들 '뮤지컬 끼', 본보 '문화예술과 놀자' 전주서 35번째 행사	http://news.donga.com/3/all/20120712/47733961/1
내일신문	죽돌과 '판돌'이 창의성 높이고 미래 삶 설계	http://www.naeil.com/news/Local_ViewNews_n.asp?bulgoid=1&nnum=670449
경향신문	순천, 다문화가정 자녀 '희망오케스트라'창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92255255&code=950312
조선일보	연극·음악동아리·백일장... 문화예술 향기가 풀풀~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02/2012070201567.html
내일신문	예술꽃 씨앗들아~	http://www.naeil.com/news/Local_ViewNews_n.asp?bulgoid=1&nnum=665695
한겨레	도심 속 시골학교 '생태 공동체'가 살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6997.html
내일신문	예술이 역사가 되고 비빔밥이 되는 신나는 세상	http://www.naeil.com/news/Local_ViewNews_n.asp?bulgoid=5&nnum=663662
동아일보	김창완 밴드-홍대 인디밴드들 평창에 '우르르'	http://news.donga.com/3/all/20120527/46560763/1

사례(기사)

신문사	제목	링크
헤럴드경제	"한국의 '엘 시스템' 전통음악 교육은 필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523000222&md=20120617062340_A1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연극·무용 등 소외 아도오에게도 문화혜택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21/2012052101884.html
조선일보	"청소년에서 장애인 등으로 음악교육 확대... 한국도 문화소외지역 등 전국 확대 바람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21/2012052100001.html
내일신문	지역확장형 문화예술교육 '오! 정다운 오케스트라' 발대식	http://www.naeil.com/news/Local_ViewNews_n.asp?bulvooId=5&num=662189
동아일보	초중고 '주5일 수업 전면 실시 한달... 현장 점검해보니	http://news.donga.com/3/all/20120401/45215096/1
서울신문	학교 밖 알찬 토요체험프로그램 봇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20024002
한국일보	요리달춤 배우고 진로 특강 듣고... 청소년수련관 가봐요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3/h2012030602312521950.htm
문화일보	놀토' 교육+놀이... 박물관에 답 있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30601032430021002
중앙일보	주 5일 수업시대 '놀토' 지자체가 책임집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525513&clcc=olink article default
세계일보	늘어난 '놀토'... "학생 대다수가 학교 안가"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0305020223&subctg1=&subctg2=
서울신문	알찬 '놀토' 특색있는 프로그램 넘친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229015024
매일경제	주5일제, 체험학습이 '대세'	http://news.donga.com/3/all/20120221/44199979/1
동아일보	[다음주 토요일부터 아이들과 뭘 하나?]주5일 수업 전면 시행... 시범운영 학교 가보니	http://news.donga.com/3/all/20120221/44199887/1
동아일보	[다음주 토요일부터 아이들과 뭘 하나?]주5일 수업 전면 시행 코 앞... 답답한 현장	http://news.donga.com/3/all/20120221/44199979/1
세계일보	새로운 개념의 미술감상교육 갤러리	http://www.segye.com/Articles/NEWS/CULTURE/Article.asp?aid=20120104001052&subctg1=&subctg2=

사례(도서)

제목	저자	출판사	링크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파트너십	임학순	북코리아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2521215&or derClick=LAG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지평	신승환	한길아트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1636453&or derClick=LAG
문화산업시대의 문화예술교육	문병호	자연사랑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87058665&or derClick=LAG
예술교육을 넘어서: 열개의 문화고원	이동연	한길아트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1636446&or derClick=LAG
멀티미디어 시대에 교실로 들어온 대중예술	박성봉	일빛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56451381&or derClick=LAH
엘 시스템아 꿈을 연주하다	체피 보르사치니	푸른숲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425&or derClick=LAH
문화예술 교육과 지역문화 정책	최현목	해조음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2745277&or derClick=LAH
문화예술교육의 도약을 위한 평가	필립 테일러	커뮤니케이션북스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6800162&or derClick=LAH&Kc=

사례(방송)

방송사	일시	프로그램	비고
EBS	2010-11-10	학교예간예술가들, 영국의크리에이티브파트너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worldedu&menu_seq=2&enc_seq=3061268&out_cp=ebs
EBS	2010-11-11	창의성을키우는자격증, 영국의아트어워드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worldedu&menu_seq=2&enc_seq=3061366&out_cp=ebs
EBS	2010-11-25	그룹의 힘! 모일수록 즐거운 음악, 스웨덴의 음악교육 현장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worldedu&menu_seq=2&enc_seq=3062434&out_cp=ebs
EBS	2011-01-12	이유 있는 몸짓 스페인의 열정 플라멩코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worldedu&menu_seq=2&enc_seq=3065989&out_cp=ebs
EBS	2011-01-13	두려움 없는 도전 스페인 섬마을, 리듬의 아이들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worldedu&menu_seq=2&enc_seq=3066074&out_cp=ebs
EBS	2011-02-07	미국의 초등교육, 독서가 중심이다-세인트제임스초등학교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worldedu&menu_seq=2&enc_seq=3067820&out_cp=ebs
EBS	2011-02-10	박물관에서 배운다-뉴욕메트로폴리탄뮤지엄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worldedu&menu_seq=2&enc_seq=3068228&out_cp=ebs
EBS	2011-02-24	춤과 노래, 희망이 있다!-빈민촌 힙합 프로젝트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worldedu&menu_seq=2&enc_seq=3069312
EBS	2012-01-02	학교에 간 예술가들 영국의 크리에이티브파트너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worldedu&menu_seq=2&enc_seq=3096426
EBS	2012-01-09	창의성을 키우는 자격증 영국의 아트어워드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worldedu&menu_seq=2&enc_seq=3097022
SBS	2012-06-28	공연과 생태여행을 결합한 제주 문화 투어!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review_detail.jsp?vVodId=V0000347380&vProgId=1000644&vMenuId=1013264&cpage=5&vVodCnt1=00085&vVodCnt2=00&vSection=V5&vCompressCode=T1
SBS	2012-07-12	지속가능한 흥대문화를 위하여!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review_detail.jsp?vVodId=V0000347380&vProgId=1000644&vMenuId=1013264&cpage=5&vVodCnt1=00085&vVodCnt2=00&vSection=V5&vCompressCode=T1
SBS	2012-08-16	여름의 꽃! 음악과 관객 뮤지션이 하나되는 축제의 현장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review_detail.jsp?vVodId=V0000347380&vProgId=1000644&vMenuId=1013264&cpage=3&vVodCnt1=00090&vVodCnt2=00&vSection=V5&vCompressCode=T1

별첨.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취지

- 지속적인 국가적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
-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공동으로 2006년 6월29일 지원법 시행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별첨.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요약

- 문화예술교육 용어정의
- 문화예술교육위원회,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설치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배치 등
-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별첨.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별첨.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 관련 용어 정의 (제2조)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문화산업·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함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분석·평가 및 교육활동을 2년 이상 수행한 자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제14조~제26조)

-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역할과 국·공립문화예술교육 시설에서 갖추어야 하는 교육환경 등에 대해 규정함
- 학교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간 연계 교육, 문화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별첨.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http://www.law.go.kr/lsOrdinAstSc.do?menuId=9&p1=&subMenu=1&nwYn=1§ion=&tabNo=10&query=%EB%AC%B8%ED%99%94%EC%98%88%EC%88%A0%EA%B5%90%EC%9C%A1%EC%A7%80%EC%9B%90%EB%B2%95&x=0&y=0#>

별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개요

-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비전 제시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역 분권화와 협치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 위기청소년, 범죄 피해자 등 예술 치유 확대...예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 4차 산업혁명 대비 통합·융합 문화예술교육 추진 등 사업의 다각화
-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제도개선 추진으로 질적 내실화

별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누구나 더욱 손쉽게 가까이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 지역·수요자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개편...질적 내실화 등
- 상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마련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제공
- 위기청소년, 범죄피해자 대상 치유교육과 4차 산업혁명 대비 통합예술교육 확대

별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역 분권화와 협치 강화

-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 지역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
- 지역이 자율과 책임하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주도
-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지역 내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치 구조를 강화

별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 협치 구조를 바탕으로
- 국민 누구나 더욱 손쉽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 수요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 계층별, 세대별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별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위기청소년, 범죄 피해자 등 예술 치유 확대... 예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
- 심리적 상처 회복이 필요한 대상
-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
-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도 개발
- 예술이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굴

별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4차 산업혁명 대비 통합·융합 문화예술교육 추진 등 사업의 다각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다각화
- 예술 분야 간, 예술과 타 분야 간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 과학기술 등과 연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방안도 마련

별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추진으로 질적 내실화

- 그간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학교 예술강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예술강사 대표를 비롯해 문체부, 지역센터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

별첨. 문화예술교육사

정의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 학교의 교원 외에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 제3항)

별첨. 문화예술교육사

목적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활동 근거, 그리고 진입 관문의 역할을 하는 인증된 문화자본
- 국가적 인증을 통한 신뢰와 협력을 통해 사회 자본을 형성
- 문화예술교육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법적 기반을 마련
- 기존 예술 강사의 양적 확산 정책에서 질적 혁신의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변화
- 우수한 미래 잠재 인력이 교육 전문 인력으로 진입하여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문화예술 교수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기획, 진행, 분석, 평가를 수행하는 인력
- 창의적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부가적인 역할도 수행

별첨. 문화예술교육사

도입배경

-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지원·관리 필요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지연
- 2012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
- 2013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출
- 실제 활용은 3년 후로 유예

별첨. 문화예술교육사

필요성

- 문화예술교육 확대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인력 수요 확대
- 이에 필요한 문화예술 인력의 검증 기준 필요
- 차별적 역량과 자격 기준의 마련이 필요
- 전문 인력으로서 활동 근거와 위상을 제고
- 자긍심과 자존감 고취 및 정체성 기여 필요
- 문화예술교육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신뢰 구축
- 자격 기준과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제도

별첨. 문화예술교육사

필요성

- 문화예술교육사 전문성과 경력개발의 역량 강화 준거
- 미래 문화예술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진입경로 제시 필요
- 예술 강사로 대표되는 현장 인력 중심의 교육 연수 체계에서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 필요
-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전문자격 관리 체계 구축과 공신력 강화
- 국가 제도를 통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
- 문화예술교육 참여 인력의 활용을 고양시킬 필요

별첨.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법적 규정

- 문화예술교육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에 문화예술교육사 보유 현황 포함
- 학교와 사회 문화예술교육 시설의 구성 조건에 문화예술교육사 보유 현황 포함
-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공공 도서관, 문화의집, 전수 회관 등의 국·공립 문화교육 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를 2015년까지 의무 배치
- 문화예술교육 법인과 단체는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를 1명 이상 상근(2015)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상근(2015)
- 지정 신청 시에 상근 문화예술교육사 현황을 제출
-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교육 시설과 단체의 평가 기준에 문화예술교육사 확보 및 관리의 체계성과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 수행 능력 등 포함

별첨. 문화예술교육사

전망

- 문화를 통한 교육에서 문화적 교육이 중요
- 장르 통합에서 과목 통합으로 학교교육과 통합이 중요
- 학교와 예술기관의 연계가 강화되고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경쟁이 중요
- 여기서 중추적으로 활동할 문화예술교육사도 기본 역할 외에 주어지는 다양한 역할과 역량을 가지고 활동하게 될 것

그 판에 다시 돌아갈 용기를 내기 위해

마음놀이터 대표 김옥진

라떼는 말이야

15년 전 이야기다.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다행히 배우려는 의지도 생각도 없는 참여자를 만났다. 딱친 삶의 무게만으로 버거운 그녀들 덕분에 내가 상상했던 예술교육으로 가르치고 도와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녀들에게는 당장은 의미 없는 일이었다. 그냥 인생 선배로서 베풀 끝에 홀로 서 있는 그녀들에게 잠시 기댈 곳이 되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때만 해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었기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던 아니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을 하며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가르치지 않는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 토대가 되었다.

그렇게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 알아갈 즈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곳곳에서 고군분투하던 지역의 문화예술기획자, 예술 강사들은 사직골의 센터로 모여 서로의 갈등들을 해소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갔다. 지원센터에서 보내오는 메일 한 통에 담긴 환대의 언어들에 이끌려 우리는 그곳에 자주 모여 앉았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성장을 지원하고 응원해주었다.

그때의 경험들과 기획했던 프로그램은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역 곳곳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네트워크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장르와 사업을 넘어 연대하고 지지하며 경쟁하며 함께 성장했다.

어느덧 15년

2021년 3월 16일 SNS에 올렸던 글로 현재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날이 따썩다. 보릿고개가 막바지다. 이때쯤엔 기획서 쓰느라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시기인데 올해는 어딘가로 가기 위해 짐가방을 들고 나섰다. 2006년 이후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시작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장애인을 첫 만남으로 미혼모 친구들과 10년, 청소년, 노인, 중년여성에서 마을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며 켜켜이 쌓아 올린 그 시간들, 지난 몇 년은 마을에서 주 삼일을 드로잉, 연극, 인문 공부반, 두 번의 축제와 전시, 골목 아카이브 드로잉 책자 발간까지 진짜 원없이 놀았다. 그러나 난 여전히 부유하는 동네 공원의 연꽃 같다. 겨우내 걷어낸 공원의 연꽃이 어느새 그 호수를 뒤덮으며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 생명력으로 버텨온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소명처럼 지키고자 했던 지역특성화사업을 처음으로 과감히 내려놓는다. 아쉬워할 동네 어른 친구들과 동지들이 떠오르지만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소명에 대한 가치를 나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워졌다. 지쳤다고 하기엔 넘 가볍고... 소명까지 들먹이기엔 넘 무겁지만 네트워크가 없는 각자도생. 매년 똑같은 선정방식과 심사, 매년 바뀌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담당자들, 연대가 없는 경쟁 구도

어쩌다... 부유하면서도 그 터가 좋아 늘 그 자리를 찾아 꽃피우고 싶었는데... 일 무섭다 생각 않고 사업비 조개 하고 싶은 것, 해야할 것 콕콕 채우며 영끌했는데... 늘 그 시작점이 같다는 게 올해는 유독 막막했다. 기획서를 버리고 바다나 보러 갈란다.

그렇게 떠났고 나는 다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처음으로 문화예술교육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의 고민과 앞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 위해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먼저 나는 행복한가?

우리 스스로 멈추지 않고 성장하려 애쓰고 있는가?

자신의 삶과 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가?

사업을 위한 사업에 의한 기획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서 시작된 고민 지점이나 내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기획을 해본 적이 있는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닌 각자의 가능성을 알아차리게 하는 기획과 강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처음부터 해왔던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험이 쌓여갈수록 정답이 없는 길을 가며 스스로 던진 질문들이다. 그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여정이고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부족하지만 잘 가고 있구나 하고 안심한다.

올해 처음 시작한 참여자가 “선생님은 왜 그림을 안가르쳐줘요?” 하는 물음에 여러 해 우리와 함께 그림을 그리시던 어르신이 툭 던지듯 하신 말씀

“여그는 가르쳐 주는데가 아니라 자기가 꺼내는 곳이야”

결과전시를 준비하며 다 같이 작품 디스플레이를 하는 날 참여자 중 한 분이 식사를 다 준비해오셨다.

“우리 일로 선생님들이 애쓰신디 우리가 이런거라도 해야제”

내 삶터로 들어와 6년을 보내며 나는 한 뼘 더 성장했고 훨씬 더 많이 행복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더 오래 머물고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더 넓은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좁고 더 깊게 흘러가는 것 같다.

작년, 올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구사업을 진행하며 들었던 생각 하나 더 있어 보자면...

이 연구사업은 대상에 대한 연구기간과 파일럿 프로그램 실행 후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 시간이 확보되는 것은 프로그램 기획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만날 사람들에게 대한 다양한 방식의 리서치를 하고 예술이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여러 방식의 분석이 가능했다. 이 시간을 담보한 프로그램으로 만난 참여자들의 또 다른 성장을 지켜보며 우리가 나눈 대화가 떠오른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수업을 이끌고 기획서를 써낼 수 있다고 자부하던 우리가 나눈 대화는 “이 아이들이 특별한 거야?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거야?”

“둘 다”

우리가 면밀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소수의 인원과 프로그램이라는 틀이 없이 시작된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던져준 순간이다.

십 년을 훌쩍 넘긴 우리도 여전히 길을 잃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만나기도 한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한 사람의 삶을 만나는 일인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멋진 일인지 안다면 나는 그 전의 나와 다를 것이다.

각자도생에서 네트워크와 공동체로

그럼에도 각자도생은 힘들다. 응원과 연대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 잘했다고 수고한 나의 어깨를 툭 쳐주는 친구,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을 때 그 길을 같이 걸어줄 친구, 먼저 가본 친구의 조언도 필요한 것이다. 그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앞서가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 공유하는 판을 깔아주는 것이 지원센터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예리한 눈으로 예산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보다 성장을 지원하고 부족함을 채우려는 눈썰미가 필요한 곳이다. 라떼는 말이야 시절의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는 나는 그런 곳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독립되고 안정된 공간이 확보된다면 다시 본래 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가 각자의 세계관을 만들고 스스로 배움을 이어가며 성장하기엔 한계가 있다. 독립된 공간에서 재미난 네트워크 파티가 열리고 배움을 나누고 갈등을 해소한다면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가 함께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원센터 자체 기획, 연구사업의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 새로운 단체나 예술가들이 낮은 문턱을 넘어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지속성을 담보하여 연차별 목표를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획사업, 광주만의 특색을 펼쳐낼 수 있는 사업 등 사람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때이다.

다른 발제문을 쓸 때보다 더 생각이 많았다. 컴퓨터 앞에 앉기까지도 많은 시간을 고민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이고 내게 행복을 주는 일이기에 더욱 할 말이 많았다. 애정의 깊이 만큼 애증도 깊었다. 마지막으로 이 말들이 그저 흘러가지 않기를 바란다. 어딘가에 스며들어 변화를 이끌어주길 바라본다.